

시민들 환호와 지지가 '유치 성공' 부른다

기고



정민곤



2013 하계 U대회 실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회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을 실사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난 3월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동구인 결의대회'서 시민들이 유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달 U대회 광주 유치 기원 서명 100만명 돌파를 자축하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치위 관계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제 2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③ FISU 현지실사 올인을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광주 유치의 분수령이 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 실사가 5월1~5일까지 진행된다.

실사단은 이 기간 동안 모두 세 차례의 프레젠테이션과 현장 방문, 헬기 투어를 통해 도시환경과 경기장 시설을 비롯 17개 항목에 걸쳐 광주의 개최 여건을 종합 점검하고 유치 기원 시민축제도 주관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방문 기간 광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도시 접근성, 정부의 지원, 유치 열기 등과 함께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 관련 인프라를 점검한다.

시와 유치위는 이 자리에서 100만인 서명부를 마차를 이용해 전달하고 대규모 환영단 준비 등 국민급에 준하는 최상의 환영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철저한 프레젠테이션과 모형 부스 등을 준비해 광주의 기반시설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경쟁도시 보다 개최 여건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시를 위해 오는 5월 1일 실사단의 광주방문에 맞춰 광주공항에 2천명의 환영단을 배치한 데 이어 실사단이 이동하는 곳곳에 수만명의 시민들을 배치, 실사단 환영행사를 펼친다.

그러나 대회 개최지 결정의 가장 큰 관건은 시민들의 유치열정을 실사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다.

실사단은 세 차례의 프레젠테이션과 현장 방문, 헬기 투어를 통해 도시환경과 경기장 시설을 비롯 광주의 개최 여건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지만, 가

수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열기로 실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개최 후보지를 점검하기 위해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이 입국한 인천공항에 무려 1천여



“개최 여건 절대 우위 부각” 실사 준비 만전 실사단 국민급 환영...유치 열정 맘껏 발산

장 눈여겨보는 것은 유치도시인 광주시민들의 대회 유치에 대한 열정이다.

실제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원동력도 시민들의 유치열기였다. 지난해 7월 여

명의 환영단이 운집, 방문객들을 뜨겁게 맞이했다.

당시 실사단이 도착하자 환영단은 2012 여수박람회 엠블럼이 그려진 깃발과 환영문구를 담은 피

켓, 머플러 등을 흔들며 환호, 실사단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같은 실사 열기는 실사 기간 내내 이어졌다.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에 실사단이 감동했음은 물론이다.

광주시 등이 실사단의 방문에 대비해 전개하고 있는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정결 운동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광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사 기간은 물론 대회 유치과정에서 시민 너나할 것 없이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가 2003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낸 밑거름은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숨은 노력이었다.

대회기간(2003년 8월21~31일) 동안 해외 동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무려 1만556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회가 열리는 동안 자원봉사 참석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으로 구성된 2만8천21명의 사포터즈는 참가국 환영행사는 물론 경기장에서 열띤 응원활동을 펼침으로써 대회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같은 광주시 도시마케팅 본부장은 “지금까지 하계U대회를 개최한 도시는 모두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바탕으로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며 “U대회 실사를 성공적으로 끝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5월의 광주는 긴 새벽을 건너 아침을 맞는 설렘이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해내고 말 것 같은 가슴 벅찬 희망과 열정을 사르는 삶의 의지로 새 삶이 돌아왔다. 1980년 당시, 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타국인들은 지극히 평범했던 시민들이 지켜낸 숭고한 정의에 감탄하며 경의를 표한다.

지난 3월, 조지 칼리안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장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신청 도시를 사전 답사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칼리안 위원장은 자식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른의 꿈을 피워보지 못하고 목숨을 담보로 정의를 지킨 80년 광주 시민들, 그리고 긴 시간 그들의 이름을 회복시키지 못했던 광주의 어린 가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으면서 5월 항쟁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광주시민의 한 사람이 되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감사의 뜻을 밝히고 돌아갔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에서 보았듯이 5월 정신은 세계의 지성으로부터 경의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는 광주에 대한 자부심과 항상 함께하게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해 더 크고 가깝게 울려 퍼진 '민주의 성지, 광주'에 대한 진실의 목소리는 세계 인권과 평화에 그늘진 곳까지 구석구석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광주는 새로운 미래로 손을 뻗었다. 세계 속에 우리 스스로를 믿고 맡긴 것이다. 1980년 '그들'이 당당한 의지로 서 있

5월 광주 가슴으로 U대회 안자

던 그 자리에 식지 않은 열기 그대로 2008년 특별한 5월을 맞이한다.

우리의 자부심과 열정의 역사가 숨쉬는 5월의 첫 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5일간의 일정으로 아름다운 동방의 등불을 따라 광주를 찾는다.

실사단이 광주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5월 정신은 숭고한 빛이 되어 스테판 버그 단장을 비롯한 실사단 6명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 것이다. 실사위원들은 각자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모두 열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세계 젊은 지성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에 광주에서는 5월 정신을 살려 열심히 준비하고 다시 한번 광주시민의 힘을 모으고 있다. 1980년 광주와 닮은 시민들이 자식을 쇠가루가 불투 단단히 뭉치는 모습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100만인 서명을 돌파하며 열원의 씨를 뿌리고 27개 집행위원국을 설 새 없이 오가며 세계 속에 광주를 심어왔다.

광주와 최대 격전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카잔이 지난 2011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중국 선전이 보여준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들고 있다. 광주 특유의 뜨거운 열정과 결집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세계는 주저 없이 광주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가 먼저 알아본 광주 시민이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원에 몸과 마음을 맡기면 된다.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된다.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장>

2008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8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상 :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내 dung : 주중 주말 그린피 1만명 합인

기간 : 2008년 4월 18일 ~ 2008년 6월 30일

사원모집

2008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구분	명수	연령	성별
총괄	100	18~25	남/여
행정	50	18~25	남/여
안내	50	18~25	남/여
기타	100	18~25	남/여

신청기간 : 2008년 4월 25일 ~ 5월 10일

신청처 : 광주광역시 도시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문의 : 062-350-1111